

최진실 자살 또 '베르테르 효과' 우려

안재환 자살 때도 잇단 모방 자살... 우울증 환자 등 관심 필요

탈런트 안재환씨가 자살한 지 채 한 달도 못돼 톱 탈런트 최진실씨가 자살하면서 유명 스타의 자살을 모방한 자살증후군이 우려되고 있다.

유명인들의 행동이 대중들의 사고와 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연예인의 자살은 청소년과 우울증 환자 등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명인의 자살을 모방해 자신의 목숨을 끊는 '베르테르 효과' 확산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베르테르 효과'가 주목받은 것은 지난 2005년. 영화 '주홍글씨'와 '태극기 휘날리며'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았던 영화배우 이은주의 자살이 계기였다.

이은주씨가 자살한 이후 한 달 동안 전국에서 1천160명이 자살했다. 이는 같은 기간 평균 자살자보다 무

려 400여명이 늘어난 수치다.

탈런트 안재환씨의 자살 이후에도 차량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하는 모방 자살이 잇따랐다.

지난달 21일 영업기사인 김모(48)씨가 담양군 무정면에서 차 안에 연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자살사건이 4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자살 도미노 현상은 젊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적 약자들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재민 전남대병원 우울증임상연구센터장(정신과 교수)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람들은 자살한 유명인들이 자신과 비슷한 문제를 가진 것으로 판단해 삶을 포기하기 쉽다"며 "이런 때일수록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과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각종 질환자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체 자살자의 8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병원 우울증센터의 연구결과 혈액수치와 관련된 질환 즉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질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5배 높았다. 또 다이어트 등으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우울증 위험은 3배까지 높아졌다.

김 교수는 "모방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의논하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우울증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자살 안 믿겨" 시민들 경악

톱 탈런트 최진실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20여년동안 사랑을 받아온 국민탈런트의 사망에 경악하면서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주부 박모(47·광주시 북구 방림동)씨는 "최씨의 열렬한 팬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세상이 무섭고 공포스럽다"고 말했다.

김모(여·59·광주시 북구 신안동)씨는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 아이들도 자신의 행동도 고치고 요즘 부쩍 열심히 활동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실감이 안난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학생 서지은(여·22·조선대 3년)씨는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누구보다 내면이 단단하리라 생각했는

데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안타깝다"며 "유명인의 자식으로 살았던 두 아이들의 앞날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회사원 엄국화(여·30)씨는 "만약 최씨의 자살이 근거 없는 소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수사결과와 발표된다면 정부에서는 사이버상의 악플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최씨의 미니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사이트에 추모의 글을 남겼다. 네티즌 정모씨는 "별이 하나 사라졌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살았을 좋겠다. 언제까지 최진실이라는 배우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이디 '피앙새'는 "스타이기 전에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도 행심하 하던 그녀였는데 사랑 소식이 차라리 오모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씨의 미니홈페이지에도 수십만명의 네티즌이 최씨의 명복을 비는 글을 남겼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톱 탈런트 최진실씨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2일 오전 최씨의 시신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이송되고 있다. /연습뉴스

특수기동대 창설, 불법 조업 잡는다

서해해경청장 직위해제

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해경은 특수기동대 창설, 헬기 탑재 함정 등의 증가 배치 등을 통해 해상 공권력을 강화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해경은 우선 특공대원 160명으로 구성된 해상특수기동대를 창설해 운영하며 나포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고속단정을 소형에서 중형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또 흑산도 인근 등 중국어선의 집중조업 구역에 헬기가 탑재된 3천t급 경비함정을 상주 배치시켜 해·공 합동 경비를 강화하고 1천~1천500t급 함정도 증가 배치한다.

한편 해경은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후임으로 해경청장 직위를 맡게 될 김기현(경북 무안)이 내정됐다.

/목포=이상희기자 lsh@연습뉴스

다 좋은 건국·산업자금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사무실: 02) 3445-0943

나주공장: 061) 337-0571

가짜 비아그라 판매업주 무더기 철퇴

가짜 비아그라 등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해 온 성인용품점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징에 적발.

광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일 최모(31)씨 등 광주·전남지역 성인용품점 업주 44명을 검거. 이 중 최씨는 미허용 품목에 대해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광주시 서구 양동 자신의 성인용품점에서 2005년 4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비아그라와 씨알씨 등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를 1정에 1만2천원씩 받고 판매해 5천여만원의 벌어들인 혐의.

경찰은 최씨가 최근까지 유명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점으로 미루어 최씨의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가 광주 시내 약국에도 판매됐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최씨가 가짜 비아그라 등을 입수한 정확한 경로도 조사 중.

"돈 값아라" 행패 고리대금업자들 적발

법정한도를 3~4배 초과한 살인적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않자 행패를 부린 고리대금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일 고리(高利)로 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이모(35)씨 등 대부분 3명을 대부분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합각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A(여·34)씨 등 7명에게 법정 이자율 한도(연이자율 49%)를 넘는 연이자 100~144%로 1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지난 8월 30일 밤 A씨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돈을 갚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행패를 부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을 벌여 광주에서 이씨 등 불법 대부업자 13명을 검거했으며,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된 특별단속에서는 48명을 검거했다.

악플, 위험수위 넘어 치명적 흉기로

네티즌 자성 목소리... 처벌 강화 여론 높아

탈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둘러싸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악성 댓글(악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악플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씨는 최근 탈런트 안재환씨에게 25억원의 사체를 빌려줬다는 악성 루머가 인터넷 등에 퍼지면서 커다란 심적 고통에 시달려왔다. 최근 서울 서초경찰청은 이 같은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모 증권사 여직원 1명을 지도 등으로 처분할 방침이었던 바 있다.

그러나 2일 최씨의 자살 보도가 나온 이후 최씨의 사망기사에 '최씨가 안재를 죽인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악플이 달라져 유명 포털사이트는 일

제히 '심각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며 댓글쓰기 기능을 차단했다.

악플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 사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사회문제가 됐다. 지난해 1월 자살한 가수 유니의 자살 이유도 인터넷 상에 떠도는 '악플'이 있다.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색시 가수로 살아야했던 유니는 성에 관련된 입에 담긴 험담 악성 댓글로 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앓다 자살

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또 지난해 1월 교통사고로 끝내 사망한 개구우면 김형은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망 관련 기사에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악플이 달려 네티즌 사이에서 "죽은 사람을 두 번 죽인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자나타다. 뜬금없는 결혼설이 탈런트 김태희씨도 한동안 악플에 시달렸다.

인터넷 상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커져자 정부도 나섰다. 정부는 인터넷 유포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24시간 불법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사 권숙순

공인중개사 김갑순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친절상담 062)222-8446 H.010-3666-8446

지역	소매지	대/전(㎡)	감평가	최저가	비고
북구	동구	587/989	21억1000만	4984000	12만평외곽도로
	서구	1128/2185	19억7800만	11억9000만	8884평외곽도로
	북구	144/314	29억3000만	19억3000만	8884평외곽도로
	북구	498/717	8980000	5980000	1980000

해외취업 연수생 모집!! (일본/분야)

일본어 Professional에 도전한다! 능력개발은 성공적인 미래와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

9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호남직업전문학교와 함께 일본어 연수와 취업에 이르는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JAVA 프로그램 개발자" 과정

교육내용: 리눅스, 네트워크, Java 프로그래밍 등 IT분야와 일본어 기초부터 회화까지!

연수 일정: 2008. 9. 29 ~ 2009. 5. 28 (8개월)

모집대상 및 지원자격: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남·여 무제한(남자는 군필 및 면제자에 한함), 일본 취업 후 일본 IT회사에 2년 이상 근무 가능한 사람, 해외(일본) 취업 및 취업비자 발급에 걸려서 없는 자, 해당 국가의 비자발급 요건을 고려하여 학력, 경력 등 지원자격 요건이 추가될 수 있음, 4선제 및 2선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1. 관련학과, 전산 및 컴퓨터계열학과, 일본어과 우대)

연수비용 지원기관: 노동부 MY WORK TOMORROW, 한국산업인력공단

상담전화 ☎ 062-605-8008, 2, 4 http://www.honam.or.kr 위치: 개암동사거리(구시청 맞은편)

(재)호남직업전문학교